

# 정보의 획득과 활용

경북대학교 도서관장

## 서 종 문

### 1.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도서관의 전문 사서로서 중견 간부의 직임을 맡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도서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고전문학의 몇몇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국문학을 전공분야로 삼아서 주로 판소리의 문학적 요소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정보의 획득과 활용’ 이라고 거창하게 제목은 잡았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평소에 공부하면서 어떻게 정보를 찾고, 그것을 활용해 왔는가 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매우 제한된 범위의 이야기라서 정보를 저장하고 분배하는 일에 전문적인 안목을 지니고 그러한 경험을 겪어온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특강으로 펼쳐기에 적절한 내용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듭니다.

경험이 축적되는 데에서 산출되는 지식이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공부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획득하는 과정과 그것을 선택하고 활용하여 논문으로 성립시키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정보의 일반적인 획득과 활용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他山之石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전공의 특성 때문에 한문으로 된 문헌, 국문으로 된 문헌, 구전되는 설화와 민요 등의 자료를 활용하게 되고, 이론적인 근거를 탐색하기 위해 구미의 연구서를 뒤적였던 일은 얼마간의 흥미로운 사례로 여길 수 있는 이야기의 밑감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2. 정보의 탐색과 선택

앞에서도 전제로 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저 자신의 경험적 사실에서 뽑아낸 것이기에 아무래도 사례 별로 이야기하는 방식에 의존하여 전달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의 체험이 대학 시절부터 기억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대구역 근처의 도서관-무슨 도서관이었고, 어떤 성격을 지닌 도서관이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에서 책을 빌려보면서 재미있어 했던 기억도 추억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대학 도서관에서의 체험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종로구 동숭동의 문리대 도서관에서 네모난

구리로 된 입관증을 들고 도서관에 가서 가방을 놓고 강의를 듣던 일이며, 입구를 지키던 분의 얼굴이 기억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정보 검색은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고서실로 들어간 일이었습니다. 그 때에 신청한 책은 金安老의 『龍泉談寂記』로 기억됩니다. 그 책이 흥미로웠던 것은 누군가 연필로 책장에 ‘역적이 지은 것’이라는 뜻의 표기를 해 놓았다는 점과 바다 속에 화산활동이 있다는 등의 백과사전적인 내용이 다채롭게 전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의 학부생으로서 한문으로 된 그 책을 활용하기 어려워서 레포트 작성 수준의 탐색에 그치게 되었지만, 이런 경험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하면서 자주 접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소리 열두 마당 중의 한 작품이었던 <변강쇠가>를 석사논문으로 준비하면서 그 기원을 탐색하기 위해서 西道唱을 하는 명창들과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전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정보제공자(informant)를 탐색하고 이에 접근해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가에 그 성패가 판가름나게 됩니다. 장충단 공원 쪽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변강쇠가>의 원형이 될 만한 소리를 찾게 되었는데, 서도창 중에서 <변강수타령>이라는 소리가 있었다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소리의 전모는 <관산옹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김정연 여사의 집에서 손수 베껴둔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뒤 이창배의 『가요집성』

에서도 <변강수타령>이 확인되었습니다만, 자료적 차이가 나기에 김정연 여사의 자료는 좋은 정보의 하나였습니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는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답사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전북 김제에서 판소리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김이수(김성수라고도 함.)씨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통문화가 얼마나 푸대접받고 있는가 라는 사실과 유용한 정보 제공자를 만나는 일이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서편제 계보에 속한 그는 김제역 근처의 허름한 집에서 부인을 생활 전선에 내보내 놓고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저 자신은 그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박사학위의 한 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기억에 남는 일은 그가 지니고 있는 판소리 창본을 복사하기 위해서 김제군청 옆에 있는 복사집에서 1970~1980년대에 존재했던 모래 사용청사진 뜨기식의 복사방식으로 그 자료를 복사했던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복사해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런 기억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광주에서 전북 고창지역에 이르는 곳곳을 여러 차례 현지 조사하여 판소리 관련 증언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경남 진주에서 전남 고흥, 여수, 완도, 목포, 담양, 전북의 남원, 고창, 정읍, 김제, 부안, 충남의 공주를 시작으로 서산지방과 경기도의 여주까지 답사를 다니며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고창 지방에서는 그 곳의 문

화원장직을 오래동안 맡아 왔으며 황토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던 이기화 원장의 자료나 증언이 박사 학위 논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보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조 후기시대에 고창에 살면서 판소리를 후원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소리꾼들을 교육하고, 판소리 사설을 고치고 가다듬은 일을 했던 신재효 선생에 대한 증언은 논문 작성 시에 매우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지식 정보의 탐색이 서책과 증언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그 선택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과 연계 등의 작업을 통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 3. 정보의 수용과 활용

필요한 정보가 획득되었다고 해서 그것의 곧 유용한 정보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 획득 과정에서 유용성 여부를 가려서 취사선택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도서관의 경우에도 이런 점과 관련하여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정보의 저장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수용공간이나 여건 때문에 선택적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 서면, 정보의 유용성을 어떻게 판단해낼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와 제한적 수용이 물고 올 수 있는 정보 저장의 불완전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도서관은 고전적 의미에서 지식 또는 정보의 박물관적 기능에 충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전자매체의 발달과 이를 활용한 정보 저장과 배급의 확산으로 書冊과 文書 등의 고전적인 정보 자료 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부당하게 낮추어 평가할 위험이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학문 정보에 있어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경우에 소위 최신 정보와 과거 정보의 가치 판단의 일반적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 쪽은 최신 정보가 중요하고 과거 정보는 덜 중요한 것 같고, 그 반면에 인문과학의 경우에는 둘 다 중요하게 보입니다.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그 중간 정도의 기준에 서서 판단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 분야에서도 외국이론을 원용하여 활용합니다. 그 가운데서 고전서사문학의 이론적 토대로 자주 원용된 서구의 이론이 있습니다. Lord Raglan의 *The Hero of Tradition*이란 논문인데, 우리 학계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개념을 우리말로 영웅의 일생', 또는 '전기적 유형'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쓰면서 고전소설, 또는 설화의 줄거리 분석에 원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1934년에 영국 민속학회에서 발표자가 위의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개념을 준거로 하여 그가 1936년에 *The Hero : A study in Tradition, Myth and Drama*란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60년이 훨씬 넘는 과거에 출간된 이 책에 전개된 이론은 우리 국문학계에서 아직까지도 금과옥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인문학에서 과거 정보의 수용과 그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확

인됩니다. 서책이 인류문화와 문명의 전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는 일은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쌓아온 저 도저한 문화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土版에서 동양의 紙類와 서양의 羊皮紙 등을 통해서 확산되었던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電子의 粒子를 통해서도 정보의 저장과 배급, 가공과 활용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경우에 전자는 토판이나 종이, 양피지와 같이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종종 이러한 신기한 도구 자체에 함몰되어 그것 자체가 지식과 정보의 화신(incarnation)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나 않은가 걱정이 듭니다. 특히 정보의 수용과 활용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지나치면 지식의 輕量化의 위험에 빠져들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은 노트에 연필로 논문을 작성해 오다가 컴퓨터의 자판을 두드려 논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직관적으로 떠올렸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실 원고지 위에 논문을 쓰던 때보다 컴퓨터 화면에 논문을 쓰게 되면서 논문의 양적 증대가 현저해지고, 논문 문장이 구어체와 닮아가는 현상이 국문학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어찌하다가 제 이야기가 개인적 경험 이야기에서 추상적인 이야기로 비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사 논문 작성 때에 제가 서도창을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논문의 근거가 될 만한 정보와 자료를 탐색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담배도 사고, 소주도 사서 대접하던 분한테서는 그렇게 유용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차대접 받아가면서 제공받은 자료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획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변강쇠가>가 광대들의 남북 교류 와중에서 서도,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기원되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화하여 판소리가 호남지방에서 무당의 잭이(무녀의 남편으로 무곡의 반주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킴)를 주체로 발생되었다는 기존의 학설에 대해서, 남쪽으로는 호남지방에서 북쪽으로는 황해도와 평안도에 이르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펼쳤던 광대들을 주체로 판소리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학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판소리 명창이었던 김이수씨에게서 획득한 자료는 제가 박사학위논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전북의 고창지역에서 조선조 후기 때 향리를 지냈던 신재효라는 분이 판소리를 후원하고, 이론을 펼치고, 교육을 시키고 사설을 개작하여 정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 박사학위 논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학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그가 정리하면서 개작한 판소리 여섯 마당(<춘향가>, <심청가>, <토별가>, <박타령>, <적벽가>, <변강쇠가>)의 사설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판소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익스피어 정도로 평가받는 신재효가 고치고 가다듬어서 남겨 놓은 판소리 사설이 소리꾼들의 소리책에서는 좀처럼 전승되어온 흔

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이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의 명창으로 광복 후에 임방울과 쌍벽을 이루었던 김연수 명창이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을 그의 창본에 많이 살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김연수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이전부터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이수씨가 그가 어렸을 때에 노인이었던 김토산으로부터 잠시 배우는 동안 베껴 두었던 창본에서 신재효의 사설의 흔적이 추적될 수 있었습니다. 김토산은 서편제의 명창으로 유명했던 이날치로부터 소리를 이어받은 명창이었으니, 이것은 신재효가 고쳐 쓴 판소리 사설이 판소리의 전승의 통로에서 소통되어 왔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 4. 무엇이 남는가.

지금까지 저는 제 경험을 소재 삼아 정보의 획득과 그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를 정리하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의 획득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자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찾아다니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집하려는 정보는 그 내용과 수준이 천차만별에 이르는 차이를 지니겠지만, 어느 것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으로도 애써 손에 넣은 정보가 반드시 그 수고에 값하는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

다. 이와 반대로 우연하게, 또는 손쉽게 구한 정보가 값진 가치를 지니는 사례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가 열심히 탐색하고 성의를 다하여 추구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 뒤따르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획득된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상식적인 생각이 통용된다고 봅니다. 많은 정보를 대비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문 분야이든지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일일 겁니다. 수집된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그것의 분류와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대비와 비교를 통해서 정리와 선택 작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원래 정리 정돈을 잘 못하는 편인데, 논문을 쓸 때에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집한 자료를 이리저리 퍼질러 놓고 활용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에 성격이 같은 자료는 모아 놓고 시작합니다.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증대하는 것도 정보의 수집과 정리에 뒤따르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대학교의 도서관의 경우도 분류 정리하는 곳의 공간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도서관은 정보의 수집과 정리뿐만 아니라, 그 활용 과제도 떠 안아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서 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